

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보도자료	2026. 5. 6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		고용센터장	양태녕	☎ 710-4440
경제활력국	고용지원팀장	오명자	☎ 710-4591	

제주도 육아휴직하는 아빠 40% 첫 돌파

- 2025년도 남성 육아휴직 최초 1,000명 넘어 -

-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2,507명 중 남성이 1,072명으로,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2.8%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
- 도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%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- 2023년 33.6%(610명)이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4년 36.1%(703명)을 거쳐 2025년 42.8%(1,072명)로, 2년 만에 10%포인트 가까이 뛰었다.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610명에서 1,072명으로 76% 늘었다.
- 제주도는 이 같은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꼽았다.
- 2024년부터 시행된 ‘6+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’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 100%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.
- 상한액은 1개월 차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고,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(월 160만 원, 통상임금 80%)로 전환돼 연간 최대 2,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.
- * (상한액) 1개월 250만원, 2개월 250만원, 3개월 300만원, 4개월 350만원, 5개월 400만원, 6개월 450만원, 7개월~160만원 → 연 2,960만원
-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

장려금에 특례를 적용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,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해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다.

-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최초 3개월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,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면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.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실적도 2023년 341개소·22억 7,900만 원에서 2025년 610개소·38억 3,6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.
-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 (www.work24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.
 - ※ (제주시) 제주시 중앙로 165, 3층(문의: 759-2450)
 - ※ (서귀포시) 서귀포시 동홍로 186, 4층 (문의 710-4490)
-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“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한 것은 6+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등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맞돌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일·생활 균형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

연도별 육아휴직 지원 현황

(단위: 명, 백만원)

연도	구분	육아휴직자 수		지원액
		인원		
		남성(비중, %)	여성	
2021년	1,814	559(30.8)	1,255	19,619
2022년	2,005	743(37.1)	1,262	25,073
2023년	1,814	610(33.6)	1,204	26,219
2024년	1,950	703(36.1)	1,247	28,631
2025년	2,507	1,072(42.8)	1,435	49,207

※ 출처: 고용행정통합분석시스템(EIS)